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으라(렘 강해 설교 22)

성경말씀: 렘29:10-14

30년 이상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유다는 듣지 않고 결국 바빌론 포로가 됨.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징계하시면서도 여전히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사 관심과 긍휼을 베푸신다.

1. 포로 생활이 70년이다. 2. 다시 데려온다. 3. 내 생각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다. 4. 지금 처한 곳에서 회개하고 부지런히 좋은 시민으로 살아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에게 징계가 오면 속히 잘못을 살펴보고 돌이킬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잠시 낙심할 수 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다(히12:5-11),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특히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10).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자들과만 사시려 하신다. 그분의 가장 큰 특징: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징계는 슬픈 것이다(11). 그러나 단련되면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사실 이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무익함을 느끼며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때이다. 하나님이 이때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다. 1. 기도하라. 들으리라(12). 2. 나를 찾으라. 만나리라(13).

3. 회복시키리라(14).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으라’

기도하라. 들으리라(12)

‘기도’(pray)라는 말은 구하는 것을 뜻한다. 아이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

삶이 풍요롭고 문제가 없을 때는 대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의 예, 다윗의 일생: 사울에게 아들에게 쫓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늘 기도가 나옴. 특히 이런 기도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

시편 3:1-5, 아들로 인해, 괴롭히는 자들로 인해

시편 22편 1-2, 11-16,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할 때에, 메시아

시편 25:1-2, 6-8, 과거의 죄들을 깨닫고 고통 중에서 하는 기도

시편 31:10-11, 17, 19-20, 비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할 때

시편 55:1-7, 갈 곳이 없어서 처량한 상태에서 비둘기를 그리며 기도함

시편 56:1-2, 8-9, 주의 병에 내 눈물들을 담으소서.

시편 40:1-4, 끈질기게 참고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

목사로서 기도할 대상: 나 자신, 아이들, 부부 관계가 깨진 가정들,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위선을 행하는 성도들,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 나라와 민족, 교회의 지도자들, 진리를 구하지 못해 애쓰는 사람들
야고보서의 기도(약5:13-14)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리라.

구하라. 성령님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눅11:9-13), 롬8:26, 31-32의 약속.

찾으라. 만나리라(13)

왜 교회에 왔는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 선포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가?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마음을 다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가?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믿는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가?

지금의 불화한 가정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가?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원하는가?

그러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마음을 다해 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설령설령하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진 문제 푸는 것을 대충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라고 권고하는 모세의 글을 보자.

신4:25-31,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이미 1000년 전에 예고된 것이다. 어려움을 겪을 때에 마음을 다해 구하여야 한다(29).

신6:4-5,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신10:12-13, 행복하려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성경을 사랑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신11:13-15,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물질의 복도 주신다.

신13:1-3,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 일꾼들이 나타난다.

언제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고후6:1-2

오늘 전심으로 찾아야 한다.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진리 안에서 찾아야 한다(요5:39).

왕상18:23-29의 엘리야와 바알의 대언자들: 1명 : 450명, 아침부터 정오까지, 오 바알이여, 소리를 지르며 꺽충 꺽충 땀. 정오부터 저녁까지 자기들의 관례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몸을 찢음.

아무 음성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주목하는 자가 없음(29).

엘리야: 36-38, 간단한 기도, 우리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특 치고 장구 치고 No!).

개역성경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안 된다(요4:22-24).

강제입스 성경처럼 영과 진리로 해야 한다.

자기 열심으로 찾으면 소용이 없다(롬10:2-3).

말씀을 무시하는 열심은 소용이 없다.

지식에 기반을 둔 열심이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딤후2:15

회복시키리라(14)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

구원의 기쁨을 되찾는 것: 죄를 지으면 숨어 다니게 된다. 용서를 받아야 바르게 설 수 있다.

부부 사이의 화목을 되찾는 것: 우리 부부 이야기, 노력해야 한다. “남편이 먼저다, 아내가 먼저다” 하고 다투면 아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한 것,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결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다(11). 그러므로 어려움과 징계를 당할 때에 이를 인생역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자. 마음을 다해 그분을 구하자. 그러면 회복시켜 주신다.